

조용기 목사,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물러난다

국민일보 회장직도 사퇴 “사랑과행복나눔 재단 전념”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75·사진) 원로목사가 순복음선교회이사장 등 주요 직책에서 물러난다.

1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당회(堂會교회 내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목사의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 사임 의사를 받아들일기로 했다.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분성전과 20개 제자교회(지역별 분교회)가 출연한 기금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교회 내 핵심 기구다.

당회 관계자는 “당회장인 이영훈 담임목사가 원로목사님께 사내 차례에 걸쳐 사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이 ‘나를 돕는 길은 내 뜻을 따라주는 것이다’고 해 사임을 받아들이지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임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목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면으로 국민일보 회장 및 발행인, 국민문화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006년 설립된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 주식을 100% 보유한 국민일보 유일 주주다. 이사회 이사는 모두 19명이며 조 목사와 차남 조만제 국민일보 사장이 이사를 맡고 있다.

재단 측은 일단 사표를 반려하긴 했으나 조 목사의 사임 의지가 워낙 강해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는 “원로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직책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은 나머지 다른 직책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며 “어차려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랑과행복나눔재단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인 수는 46만 명, 연간 예산은 1250억원이다. 단일교회로서 세계 최대 규모다. 조 목사의 가족이 교회 관련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최근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당회를 열고 조 목사 가족의 역할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 목사는 지난달 22일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세례기도회에서 “저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음을 고백 자백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며 설교도 중 교인들에게 무릎을 꿇기도 했다. 당시 조 목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긍휼로써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며 “저의 할 일은 끝났다”고 말했다.

한편 개신교 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조 목사에게 순복음선교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약속을 18일까 지 지키라고 요구해 왔다.

백성호 기자 vangogh@joongang.co.kr

22명이 50억 ‘VIP 인출’ ...

5000만원 이상 인출자 명단 확보 1인 평균 2억3000만원 빼내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일 16일 22명이 5000만원 이상을 인출했으며, 이들이 빼낸 금액은 모두 50억원(1인 평균 2억3000

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명단과 계좌 정보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VIP 인출금액은 영업정지 전날 총인출액인 92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 주부터 VIP 인출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과 보혜 /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비상총회가 1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 지하주차장에서 열렸다. 총

중수부, 이번주부터 소환

도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서 영업시간 이후 예금을 인출한 사람은 총예금자인 39만여 명의 1%에 해당하는 3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 당국은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거나 금감원 고위 간부, 저축은행 임직원 등이 미리 알아낸 영업정지 정보를 VIP들에게 알려 주

는 방법으로 특혜인출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에 대해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인출 현장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 TV(CCTV)를 분석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자와 은행 직원 간 유착 관계, 금품을 건넨 정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현주 기자 koreau@joongang.co.kr

회에 참가한 피해자들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고 있다. 송봉근 기자

“가방공장·신발공장 다니며

5000만원 이상 묶인 서민 예금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박모(61)씨는 스무 살에 시집은 뒤 가방공장-메니큐어공장-버스공장-신발공장 등 다다본 공장이었다. 10년 전부터는 몇 푼 더 모아 보겠다고 공장 일을 야간으로 돌리고 아침마다 목욕탕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40년간 쪽잠으로 버텨 가며 번 돈으로 아이들을 공부시켰다. 박씨는 “이제는 사고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남편(74)만 돌보며 노후자금으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박씨의 꿈도 함께 무뎠다.

38세의 노총각 아들을 장가보낼 생각에 들떠 있던 남모(68)씨도 50여 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8000만원을 당분간 찾을 수 없게 됐다. 아들 결혼비용에 쓰고 나머지는 본인 노후자금으로 삼으려던 거였다. 남씨는 정신적 충격에 약까지 먹

고 있다. 남씨는 “월남전에 참전도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아들 결혼자금이라도 빨리 찾게 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남편과 일직 사별한 배모(61)씨도 마찬가지다.

8000만원 묶인 68세 남씨 월남전까지 참전하며 모은 노후 자금, 아들 장가 보낼 돈

배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푼 두푼 모은 1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사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약성빈혈’ 진단을 받았고 회사에서 퇴직해야 했다. 그는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이 부산저축은행에 있다”며 “엄게 1위 /

40년 쪽잠으로 번 돈인데 ...”

“옛날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됐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생활비 20만~30만원이 없어 거리로 나왔어야 할 처지도 많다고 한다. 단순한 재산상의 피해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세 사람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비상

1억원 못 찾는 61세 배씨 약성빈혈로 퇴직 - 평생 모은 돈 엄게 1위가 영업정지 됐다니

대책위원회에 가입한 회원은 2200여 명이다. 비대위 회원들의 피해액은 2500억원에 달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을 예치한 60~70대 노인이 대부분이다. 가슴 아픈 사연은 더 하다. 일가족이 부산저

축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물린 경우도 있고 출산을 앞둔 한 30대 주부는 남편과 8년 가까이 모은 돈 8000만원이 묶이는 바람에 아파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게다가 영업정지 전날 390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예금을 찾아갔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 컸다. 전체 예금주인 39만여 명의 1%만이 영업정지 전날 1077억원 을 인출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VIP 고객들과 은행 임직원 및 친인척 등이라고 한다.

대검 중수부가 배수진을 치고 수사에 임하는 이유다. 대검 우형우 수사기획관은 “특혜 인출자들을 모두 조사하기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부산 현장에 보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현주 기자

“주다가 망해도 모두 정부가 보상한다면 누가 안 가겠느냐”며 “저축은행에 5000만원 남게 예금했거나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는 고액 자산가도 많은 텐데 그들 돈을 국민이 부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예금보험기금 중 저축은행 계정은 이미 3조원가량 적자인데 저축은행 고객들만 예금 잔액을 보호해 준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고 말했다. 그는 또 “더욱이 후순위채의 투자자 상당수는 경영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공공자금으로 보상하자면 결국 국민적 부담이 일어날 것”이라며 “부산 의원들이 지역 민심 때문에 그런 것 같지

만 그들의 사정을 봐주려고 금융 시스템의 기본을 흔들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저축은행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과 상의도 하지 않고 법안을 낸 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후순위채권=영리법인이 파산할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 회사채보다 뒤에 있지만 평상시엔 고금리가 보장되는 ‘고수익·고위험’ 채권이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PF) 등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해져자 연리 8% 안팎의 고금리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후순위채권을 대량 발행했다.

취재일기

김연아의 아리랑 ... 대한민국에 바치는 ‘오마주’

(Homage, 존경을 뜻하는 불어)



러시아 모스크바에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김연아(사진)의 첫 ‘오마주 투 코리아(Hommage to Korea,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 공개출연을 지켜본 뒤 뉴욕 타임스의 크리스토퍼 클래리 기자가 물었다.

“이 음악이 뭐예요?” 설명을 들은 그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다. 한국 민요였나 몰랐다. 한국 음악이라는 생각이 보다 좋은 곡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 ‘오마주 투 코리아’를 연기하며 우아한 자세로 빙판을 가로지를 때 배경으로 흐르는 아리랑의 선율에 기자의 가슴도 쿵쿵 뛰었다. 몇몇 한국 팬은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해외 취재진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음악 파일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기자도 있었다.

민요 원곡 아리랑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정도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마주 투 코리아’는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단장과 드라

미국 영화음악의 거장 로버트 버넷이 함께 편곡했다. 지난해 4월 김연아의 안무가인 데이비드 윌슨이 서희태 단장에게 ‘한국인 기자의 가슴도 쿵쿵 뛰었다. 몇몇 한국 팬은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해외 취재진의 반응도 호평 일색이다. “음악 파일을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기자도 있었다. 민요 원곡 아리랑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 정도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오마주 투 코리아’는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단장과 드라

귀에 익숙하고 비트가 강한 음악이 흐르면

아무래도 마음이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챔피언 김연아의 새 프로그램에 세계 피겨계의 시선이 집중된 대회였다. 이 부담스러운 대회에 김연아는 과감하게 아리랑을 등장시켰다. 열정적이고 대담하며 고정팬에게 얽매지 않고 애국심마저 강한 김연아에게서 기자는 ‘2세대의 유전자’를 봤다. 김연아는 당당했다.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가락을 바탕으로 한 곡을 프리 곡으로 썼다. 세계인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곡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일본의 한 기자는 “아사다 마오나 안도 미키도 이런 시도를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며 부러워했다.

nuri3@joongang.co.kr
은누리 스포츠부 기자

150 YEARS
MASTERING SPEED FOR 150 YEARS

New Collection
CARRERA Heritage

1860 Edouard Heuer founded his workshop in the Swiss Jura.
1916 First mechanical stopwatch accurate to 1/100th of a second.
1969 First automatic chronograph.
2011 TAG Heuer CARRERA Heritage Calibre 16.

제품 및 AS 문의, 부회/영업팀 02-548-6020-1 롯데호텔 스포츠동 지하 1층 02-776-9018 서울/갤러리 EAST 02-512-6088 롯데백화점 에비뉴점 02-2118-6064 잠실점 02-2143-7872 신세계백화점 명동 02-310-5332 강남점 02-3479-6021 영동점 02-2639-1961 현대백화점 명동 02-3438-6031 목동점 02-2163-1183 경기/AK 홀리저 보령점 031-704-7024 갤러리아 동명점 031-546-8522 인천/신세계백화점 02-430-1584 현대백화점 동명점 041-412-2933 신세계백화점 송정점 041-640-5004 대전/갤러리아 마담점 042-720-0152 대구 롯데백화점 053-6203111 현대백화점 053-294-3346 울산롯데백화점 052-920-4722 부산/롯데백화점 부산점 051-610-4126 연남시점 051-730-5200 공복점 051-678-4338 신세계백화점 센텀시점 051-745-2467 영포시점 051-245-5576 www.tagheuer.com

34 4393302 43판

토요타여도, 토요타가아니어도

토요타 일류 테크니션이 점검합니다. 세상의 모든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차가 무엇든, 지금 토요타에서 점검 받으세요. 내 차처럼 '내 가족처럼'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어떤 오너에게나, 무상으로 해드리는 최고의 기아입니다.

타보자, 즐기자
무상점검 받으러 토요타에 가자

5월 가정의 달 기념
토요타여도, 토요타가아니어도 무상점검 서비스

대상: 토요타 전시장 방문 고객 차량 (토요타 및 타사 차량 모두 포함) 기간: 2011년 5월 2일 ~ 5월 31일

점검 항목: 총 10가지 항목

● 엔진오일 레벨 및 상태 ● 냉각수 레벨 및 상태 ● 리미티드 오일 누수 ● 벨트류 노후 상태 ● 브레이크액 레벨 및 상태 ● 파워스티어링 오일 레벨 및 상태 ● 세차액 보충 ●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 라디오 작동 상태 ● 윈도우 클리어스 세정 ● 차시터널 항상 열려있는지 여부 ● 차내 온도 조절 장치 작동 여부

문의 02-799-7700 · 강남 02-3496-0300 · 분당 1577-9811 · 서촌 02-520-5500 · 잠향점 02-2242-3100 · 강동 02-489-0301
목동 02-2642-5700 · 일산 031-977-7717 · 수원 031-780-6677 · 황준 031-386-5200 · 부산 080-855-0007 · 창원 080-855-0777
광주 010-546-8522 · 대구 053-6203111 · 대전 042-720-0152 · 서울 02-512-6088 · 인천 031-546-8522 · 울산 052-920-4722 · 부산 051-610-4126 · 연남시점 051-730-5200 · 공복점 051-678-4338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점 051-745-2467 · 영포시점 051-245-5576

43판 4393302